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

朱星一**

◁ 목 차 ▷

- I. 서론
 - II. 조선초기의 중국어 注音 방식
 - III. 《四聲通解》 注音의 성질과 음계 고찰 원칙
 - IV. 《四聲通解》에 반영된 중국어 음계
-

I. 서론

漢語 發展史에 있어 近代漢語는 古代漢語로부터 現代漢語에 이르는 과도기로써 近代漢語에 대한 충분한 研究가 진행되지 않고는 現代漢語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韻書와 韻圖 등 近代漢語의 연구에 이용되는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元明 시기 중국어의 실제어음 재구에 있어서는 朝鮮 初期 표음문자로 당시의 중국어음을 기록하고 있는 韓中 譯音 자료만큼 그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近代漢語 연구에 활용되어 온 조선초기의 譯音 자료 중 당시의 중국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는 申叔舟 등의 학자들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洪武正韻譯訓》(1455)와 《四聲通攷》(1455)와 중종 시대에 崔世珍이 편찬한 《四聲通解》(1517) 그리고 《四聲通解》보다 몇 년 앞서서 편찬된 漢語 회화 학습서인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 속에는 중국 어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해 놓은 “正音”·“俗音”·“今俗音” 등을 비롯하여 “左側音”(《翻譯老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A0047)

**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乞大)와 《翻譯朴通事》의 좌측 표기음)과 “右側音”(《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의 우측 표기음) 등 近代漢語 음운체계의 열쇠가 되는 귀중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다. 표음문자로 기록된 조선의 韓中 譯音 자료의 활용은 反切을 주요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 전통음운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시의 실제 어음의 音價를 밝히는 데 크게 공헌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四聲通解》는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편찬한 운서로서 조선 음운학자들의 중국 음운에 관한 독자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 가치가 높은 문헌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四聲通解》에 수록되어 있는 “正音”·“俗音”·“今俗音” 등 注音符號들에 대한 충실한 고찰을 통해 《四聲通解》가 반영하고 있는 당시의 중국어 어음체계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注音符號의 형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注音符號의 방식과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 각 注音符號의 성질을 고찰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론의 도출에 주력하기로 한다.¹⁾

II. 조선초기의 중국어 注音符號 방식

자국의 언어로 제3국의 언어를 轉寫할 때는 어음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朝鮮 初期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 진행된 중국어음의 轉寫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申叔舟와 崔世珍 등의 걸출한 언어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은 각 譯音書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通攷所制字”와 “國俗撰字” 등 상이한 두 부류의 注音符號 방식을 채택하여 중국어음을 전사하였다.²⁾

1. 通攷所制字 방식

訓民正音が 과학적인 표음문자 체계이며, 또한 중국의 음운학에 기초하여 창제된 문자체계라고 하더라도 한국어의 어음체계가 중국어와 일치하지는 않았기 때문

1) 다만, 지면상의 문제로 제4장 《四聲通解》에 반영된 중국어 음계에서는 성모체계에 관한 고찰만으로 연구범위를 국한하고, 운모와 성조체계에 관한 연구는 따로 실기로 한다.

2) 아래 소개하는 두 부류의 주음방식에 대해서는 朱星一(2006)에서 소개한 바 있으며, 본 고에서는 본론의 원만한 전개를 위해 그 일부만을 재정리하여 수록한다.

에 훈민정음을 이용해 중국어의 발음을 정확히 옮겨 적는 데는 표기상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을 것임은 추측 가능한 일이다. 일찍이 申叔舟는 중국어를 注音符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어음은 가볍고 얕으며, 중국의 어음은 무겁고 깊다. 지금의 훈민정음은 본국의 어음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중국어음의 기록에 사용한다면 반드시 변형을 시켜 사용해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大抵本國之音輕而淺，中國之音重而深。今訓民正音出於本國之音。若用於漢音，則必變而通之，乃得無碍。³⁾

이처럼 申叔舟는 당시 한국어 어음체계의 자모만으로는 중국어음을 기록할 때 표기상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訓民正音 자모 형태를 변형시켜 이를 보완하여야만 보다 정확히 중국어음을 기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申叔舟는 바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訓民正音의 자모 형태를 변형시켜 중국어음과 훈민정음 각 음소들을 1:1로 대응시켜 중국어음을 기록하였다.

齒音 기록을 예로 들면, 한국어의 어음체계는 중국어와 달리 齒音에 齒頭音과 正齒音의 구별이 없었다. 따라서 중국어 齒音의 표기를 위해서 한국어 齒音 음소인 ‘ㄷㅈㅅ’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중국어의 齒頭音은 ‘ㄷㅈㅅ’로, 正齒音은 ‘ㄷㅈㅅ’로 각각 注音符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형을 통한 주음 이외에도 轉寫音이 가지는 근본적인 注音符의 한계를 인정하고 해당 주음이 나타내는 실제음가를 따로 설명함으로써 음계 간의 차이와 이에 따른 주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중성을 ㅏ로 적는 글자는 ㅏ와 ㅑ 사이로 발음하며; ㅑ인 글자는 ㅑ와 ㅓ 사이의 어음으로; ㅓ인 글자는 ㅓ와 ㅕ 사이의 어음으로; ㅕ는 ㅕ와 ㅗ 사이 어음으로; ㅗ는 ㅗ와 ㅛ 사이 어음으로; ㅛ는 ㅛ와 ㅜ 사이 어음으로; ㅜ는 ㅜ와 ㅠ 사이 어음으로; ㅠ는 ㅠ와 ㅡ 사이 어음으로; ㅡ는 ㅡ와 ㅜ 사이 어음으로; ㅜ는 ㅜ와 ㅡ 사이 어음으로 발음해야만 중국의 어음에 대체로 부합한다.

故中聲爲 ㅏ 之字則讀如 ㅏ 之間; ㅑ 之字則讀如 ㅑ 之間; ㅓ 則 ㅓ 之間; ㅕ 則

3) 《四聲通攷》「凡例」第7條.

ㄱ一之間; ㄱ則ㄱ·之間; ㄴ則ㄴ·之間; ㄷ則ㄷ一之間; ㄷ則ㄷ一之間; ·則·一之間; 一則一·之間; | 則 | 一之間然後庶合中國之音矣.⁴⁾

이러한 注音 방식을 따로 이르는 마땅한 명칭은 없지만 崔世珍이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에서 右側音과 대별하여 左側音을 “在左者, 卽通攷所制之字”⁵⁾라고 한데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주음을 ‘通攷所制字 방식’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攷》, 그리고 《四聲通解》등 운서를 비롯하여 당시의 중국어 회화교본으로 널리 사용된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의 左側音 등 조선 초기 대부분의 중국어 주음 자료들은 바로 이러한 ‘通攷所制字 방식’을 따르고 있다.

2. 國俗撰字 방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초기 대부분의 韓中 譯音은 1:1 음소 대응 방식인 通攷所制字 방식이 사용되었지만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또 하나의 注音 방식이 있었으니, 바로 ‘國俗撰字 방식’이다. 崔世珍이 고안하여 중국어 어음 전사에 사용한 이 주음 방식은 당시 중국어를 학습하는 초학자들에게 발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 한국어의 어음체계 내에서 통용되는 자모체계만을 이용하여 간략하게 중국어 어음을 전사한 방식이었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문헌 자료 중 國俗撰字 방식에 의한 가장 이른 기록은 崔世珍의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 右側音이다.

崔世珍은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서 左側音과 右側音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左側의 것은 《四聲通攷》에서 제정된 글자이며, 右側의 것은 지금 중국 어음을 國俗撰字의 방식에 따라 글자를 만든 것이다. 《四聲通攷》의 글자체들은 國俗撰字의 방식과 많이 다르다. (《四聲通攷》에서는) 各字並書를 初聲에 사용하는가 하면

4) 《四聲通攷》「凡例」第7條.

5)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諺音”條.

ㅁ와 ㅂ를 終聲에 사용하여, 초학자들이 (학습하는데 있어) 비록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도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지금 세속에 따라 사용되는 글자체를 골라 주음한 것이다.

在左者, 卽通攷所制之字. 在右者, 今以漢音依國俗撰字之法而作字者也. 通攷字體多與國俗撰字之法不同, 其用雙字爲初聲, 及ㅁㅂ爲終聲者, 初學雖資師授率多疑碍, 故今依俗撰字體而作字.⁶⁾

이를 통해 우리는 崔世珍이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를 편찬하면서 당시의 俗音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左側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右側音을 따로 설정한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중국어 초학자들에게 학습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通攷所制字 방식에 의해 중국어음을 기록한 左側音들 중 일정 부분은 당시 사용된 한국어의 자모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것이었으므로 한국어의 음계에만 익숙한 중국어 초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학습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어 齒音 표기를 위해서 한국어 음절체계 내의 齒音 ‘ㄗㅈㅅ’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중국어의 齒頭音을 ‘ㄗㅈㅅ’으로, 正齒音을 ‘ㅈㅈㅅ’으로 각각 注音하였는데, 이는 음운 지식이 없는 중국어 초학자들에게 난해한 부분이라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國俗撰字 방식에 의한 右側音에서는 이들 중국어의 齒頭音과 正齒音을 모두 한국어 음계 내에서 사용하는 齒音 ‘ㄗㅈㅅ’로 동일하게 注音함으로써 학습상의 편리를 제공한 것이다.

둘째, 通攷所制字 방식에서는 일부 한국어 음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초학들의 발음 편의를 위해 이들을 되도록 한국어 음계 내에서 사용되는 상근한 음소들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左側音에서 終聲 표기에 사용된 “-ㅁ, -ㅂ, -ㄷ, -ㅇ” 등 子音이 그것인데, 이들은 당시의 한국어 음계 내에서는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었으므로 國俗撰字 방식에 의한 右側音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하여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 기록된 다음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四聲通攷》의 “賁”자의 음은 “즈”인데, 註를 달아 말하길 “俗音중”이라고 하였다.

6)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諺音”條.

韻內 齒音 글자들은 입과 혀의 모양이 변하지 않으므로, -△로써 종성을 삼은 연 후에야 그 미묘함을 다 나타낼 수 있다. 지금 齒音 글자들에 《四聲通攷》에 따라 -△를 넣어 기록한다면 초학자들이 소리를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反譯(右側音)에서는 -△를 제거한다. 하지만 직접 -△를 제거한다면 현실음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正音에 -△를 가하여 좌측에 둔다. 학자들은 반드시 正音에 -△를 가하여 발음하길 바라며, 그런 후에야 현실음에 부합하게 된다.

通攷貲字音즈註云俗音중. 韻內齒音諸字口舌不變, 故以△爲終聲, 然後可盡其妙. 今按齒音諸字若從通攷加△爲字, 則恐初學難於作音, 故今之反譯皆去△聲, 而又恐其直從去△之聲, 則必不合於時音. 今書正音加△之字於左⁷⁾. 庶使學者必從正音用△作聲, 然後可合於時音矣.⁸⁾

위 「凡例」를 통해 우리는 崔世珍 역시 “貲”자 등, 齒音의 支韻 글자들에 대한 음성학적인 정확한 현실발음(“合於時音”)을 위해서는 通攷所制字 방식의 注音에서 처럼 終聲에 -△를 덧붙여야 마땅함을 알고 있었으며,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俗撰字 방식에 의한 右側音에서 -△를 제거한 것은 단지 발음함에 있어서 초학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¹⁰⁾

셋째, 通攷所制字 방식에서는 음소의 1:1 대응 과정에서 각 음계 내에서의 원래 발음이 서로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음소들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성모 기록에서 “ㄱ ㄷ ㅌ ㅍ ㅈ ㅊ ㅍ ㅈ ㅊ” 등의 各字竝書와 唇音 “빙”의 음가는 한국어음계 내에서의 발음과 중국어 대상 어음이 차이가 난다.¹¹⁾ 또한 중국어의 성조를 나타낸 방

7)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는 “右”로 되어 있으나, “貲”字的 正音 표기“즈”에 종성 표기 -△를 보태어 기록한 것은 《翻譯老乞大·朴通事》의 좌측 주음에서 채택한 것이므로, 원문 “正音加△之字於右”에서의 “右”는 “左”의 오기인 것으로 판단하여 필자가 고쳐서 기록하였다.

8)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條.

9) 《四聲通攷》는 실전되어 그 내용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正音 및 俗音의 표기가 《洪武正韻譯訓》의 그것과 일치했음은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증명된 주지의 사실이다. 《洪武正韻譯訓》에서 “貲”자의 정음은 “즈”, 이에 대한 俗音은 “중”으로 전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俗音 終聲에 사용된 “-△”은 현실어음의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으며, 崔世珍 역시 이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 《翻譯老乞大·朴通事》의 右側音에서 齒音 支韻 글자들의 운모에는 한국어 음계 내의 종성 표기인 “、”(ㄱ)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資:즈 ; 次:츠 ; 私:스 등의 표기가 바로 그것이다.

점에 있어서도 通攷所制字 방식에서는 중국의 調類를 그대로 이용하여 방점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들 방점으로 표시된 양국 언어의 音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동을 피하고자 國俗撰字 방식에서는 중국어 각 調類의 실제 음가와 유사한 한국어 음계에서의 방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¹²⁾

위에서 보듯, 通攷所制字 방식과 國俗撰字 방식은 각각 상대적인 注音符의 장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譯音 자료를 이용하여 近代漢語 어음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注音符 기록의 형태귀납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注音符들이 각각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던 대상어음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Ⅲ. 《四聲通解》 注音符의 성질과 음계 고찰 원칙

주지하듯 《四聲通解》에는 正音과 俗音 그리고 今俗音 등 세 종류의 注音符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 세 注音符들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본고에서 이들을 통해 당시의 중국어 음계를 합리적으로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이들의 상호관계 정립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正音은 운서의 反切音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실과 괴리된 어음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운서의 성질에 따라서는 反切에도 현실음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1) 通攷所制字 방식인 左側音에서는 중국어의 전탁음 표기를 위해 한국어의 경음 표기부호를 사용하였으며, 중국어의 순치음[ʈ]를 한국어의 순경음 ڠ[β]를 이용하였다.

12)

通攷所制字 방식 左側音(방점 표시)	國俗撰字 방식 右側音(방점 표시)	中國語 聲調
平聲(점 없음)	去聲(·)	陰平
	上聲(:)	陽平
上聲(:)	平聲(점 없음)	上聲
去聲(·)	去聲(·)	去聲
入聲(·)	去聲(·)	入聲
	上聲(:)	

《四聲通攷》「凡例」 제1조에서는 正音과 俗音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운도와 운서 등 여러 서적과 지금 중국 사람이 사용하는 바로써 그 字音을 정하고, 또 중국의 현실음으로서 널리 사용되고는 있는 중국현실어음인면서 운도나 운서의 음과 맞지 않는 것은 글자(수록자)마다 원래의 반절 아래 俗音이라고 써서 표시하였다.

以圖韻諸書，及今中國人所用，定其字音，又以中國時音所廣用，而不合圖韻者，逐字書俗音，於反切之下。

위 「凡例」에서 말하고 있는 反切은 다름 아닌 《洪武正韻》의 反切을 가리키는 것이며, 현실음에서 기존 反切과 달라진 어음, 즉 俗音을 反切音 아래 따로 달아 두었다고 하였다. 비록 《四聲通攷》는 失傳되었지만, 《洪武正韻譯訓》의 正音과 俗音 기록을 통해서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凡例」 자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正音과 俗音의 의미파악을 명확히 한다면, 이들에 대한 정체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凡例」에서는 正音을 운도나 운서 등에 부합하는 어음인면서 동시에 당시 “중국 사람이 사용하는(中國人所用)” 어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俗音은 “운도나 운서 등에 부합하지 않는(不合圖韻者)” 어음이며, 당시 “중국의 현실음으로써 널리 사용되는(以中國時音所廣用)” 어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正音과 俗音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正音은 운도나 운서에 부합하는 현실음, 俗音은 운도나 운서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俗音 표기가 없는 대부분의 正音은 당시의 현실음 체계에서 여전히 사용되었으며, 변화가 감지되는 正音에는 특별히 俗音을 따로 표기하여 어음의 변화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조선 정부에서 표준 운서의 대상으로 《洪武正韻》을 선정할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국어의 학습은 예나 지금이나 해당 국가의 권위 있는 표준어음 체계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洪武正韻》의 출현 배경이 正音, 즉 표준음의 정립에 있었음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편찬된 《洪武正韻》이 제3국인들에게 있어서 표준음의 근거가 되는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

이다.¹³⁾

둘째, 당시 운서 번역이 외교 혹은 무역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목적에 의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당시의 조선정부가 중국의 欽定 韻書인 《洪武正韻》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현실음과 동떨어진 어음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양국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언어학습에는 부적합했을 것이다. 우리는 아래의 《四聲通放》「凡例」를 통해 조선 정부가 《洪武正韻》을 적어도 현실어음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운서로 인정했음을 엿볼 수 있다.

무릇 舌上音은 혀를 경구개에 닿게 하여 발음하는 것이라, 그 음이 어려워져 저절로 正齒音에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韻會》에서는 舌上音인 知·徹·澄·孃母를 正齒音인 照·穿·牀·禪母와 합쳤으나, 중국의 현실음에서 孃母 하나만은 (正齒音이 아닌) 泥母에 귀속되어졌다. 또한 本韻(《洪武正韻》)에서도 泥母와 孃母를 뒤섞어 구별하지 않았다. 이제 知·徹·澄母를 照·穿·牀母에 귀속시키고 孃母를 泥母에 귀속시킨다.

凡舌上聲, 以舌腰點齶, 故其聲難, 而自歸於正齒. 故《韻會》以知、徹、澄、孃歸照、穿、牀、禪, 而中國時音獨以孃歸泥, 且本韻混泥、孃而不別. 今以知、徹、澄歸照、穿、牀, 以孃歸泥.¹⁴⁾

순경음인 非·敷 두 자모에 속하는 글자들은 本韻 및 蒙古韻에서는 서로 뒤섞여 이미 하나가 되었으며, 중국현실음에서도 다르지 않으므로 지금 敷母를 非母에 귀속시킨다.

脣輕聲非、敷二母之字, 本韻及蒙古韻混而一之, 且中國時音亦無別. 今以敷歸非.¹⁵⁾

위 두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本韻”은 《洪武正韻》의 字韻을 가리키는 것이며, 《洪武正韻》이 당시 중국어에서 泥母와 孃母, 非母와 敷母가 각각 하나로 귀납되고 있던 어음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申叔舟를 비롯한 당시 조선

13) 《洪武正韻譯訓》「序」: “明太祖高皇帝, 愍其乖舛失倫, 命儒臣, 一以中原雅音, 定爲洪武正韻. 實是天下萬國所宗.”(명나라 태조 황제께서 성운체계가 어그러지고 순서가 어지러워진 것을 딱하게 여기시어, 유신들에게 한결같이 中原雅音으로써 기준을 삼아 洪武正韻을 정하라고 명하시니, 洪武正韻은 실로 천하만국이 받들 기준이다.)

14) 《四聲通放》「凡例」第3條.

15) 《四聲通放》「凡例」第4條.

의 음운학자들이 《洪武正韻》을 실용적인 현실음계를 반영하고 있는 운서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는 과거 《洪武正韻譯訓》의 正音を 中原雅音에 기초한 당시의 전통 官話音, 즉 讀書音으로, 俗音を 中原雅音으로부터 발전해온 신흥 官話音으로 추정한다. 16) 讀書音과 口語音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상호 영향을 받으며 발전한다. 현대한어에 한층 더 가까워진 근대한어 시기에는 이러한 지속적인 상호 교류에 의해 讀書音과 口語音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임은 추측 가능한 일이다. 일부분의 正音에만 俗音이 나타나는 연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들은 《洪武正韻》을 “本韻”이라 하여 기준 어음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北京을 중심으로 한 수차례의 중국 방문¹⁷⁾을 통해 어음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험한 편찬자들은 그 차이들을 따로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의 중국어 교육이 외교와 무역 등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俗音은 바로 이러한 어음의 고찰 과정에서 《洪武正韻》의 反切음에서 변화, 발전한 현실어음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俗音 기록 없이 정음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讀書音과 口語音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보며, 俗音 기록을 따로 둔 부분에서는 讀書音과 口語音에 차이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四聲通解》에는 正音과 俗音 이외에도 今俗音을 기록하고 있다. 崔世珍은 俗音과 今俗音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음기록 내에서 “俗音”이라고 하는 것은 《四聲通攷》에서 기록하고 있는 “俗音”

16) 주성일(2008) p.62.

17) 《洪武正韻譯訓》「序」: “語音既異, 傳訛亦甚, 乃命臣等, 就正中國之先生學士, 往來至于七八, 所與質之者若干人. 燕都爲萬國會同之地, 而其往返道途之遠, 所嘗與周旋講明者又爲不少. 以至殊方異域之使、釋老卒伍之微, 莫不與之相接, 以盡正、俗異同之變.”(語音이 이미 달라지고 訛傳됨이 역시 심하게 되어, 이에 臣 등에게 중국의 선생이나 학자에게 물어보아 바로잡도록 명하시어, 왕래가 7·8번에 이르렀으며 질의한 사람이 몇이나 된다. 燕都(지금의 北京)은 만국이 회동하는 곳으로, 먼길을 오가는 길에 일찍이 교섭하여 밝혀보려 한 사람이 또한 적지 않았고, 변방 외국의 사신과 종교인(釋老) 그리고 군인들(卒伍)에 이르기까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이에 따라 正과 俗의 다르고 같게 변한 것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을 일컫는 것이며, “今俗音”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록하는 “俗音”이다. 今俗音을 어떤 자에는 기록하고 어떤 자에는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것에만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아서가 아니요, 들은 바의 음대로 그것을 적어두었기 때문이다.

注內只曰俗音者，卽《通攷》元箸俗音也。曰今俗音者，臣今所著俗音也。今俗音或著或否者，非謂此存而彼無也，隨所得聞之音而著之也。¹⁸⁾

崔世珍의 말대로 실제로 《四聲通解》에서는 今俗音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崔世珍과 申叔舟의 어음자료 수집경로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서라면 俗音과 今俗音은 서로 역사적인 연계 선상의 근소한 차이, 즉 대략 60여년의 시차가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어음의 발전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테지만 이들의 상호 차이를 통해 어음상의 미세한 차이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今俗音 기록은 상당히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록 자체가 많은 분량이 아니어서 이를 통해 어음의 변화를 유추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편, 《四聲通解》에서는 당시의 중국 어음에 대하여 「序文」과 「凡例」 그리고 본문의 音注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묘사해 놓았다. 때론 이러한 어음의 묘사가 俗音 및 今俗音 등 실제 주음 기록의 형태와는 달라 표면적인 귀납만으로는 당시의 어음체계를 정확히 묘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현상은 어음의 과도기적 발전과정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자연스러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음 변화 시점을 논하는데 있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 약간의 견해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四聲通解》에 기록된 正音과 俗音, 그리고 今俗音의 성질을 통해 당시 구두 어음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正音 기록 외에 俗音과 今俗音 기록이 없다면, 讀書音과 口語音이 동일했으므로 인정하고 正音 자체의 고찰에 주력한다.

둘째, 正音 기록과 俗音 기록만 있고 今俗音이 없다면, 俗音의 고찰에 주력한다.

셋째, 今俗音 기록이 있는 것은 俗音 기록과의 대조를 통해 그 차이를 밝히고

18) 《四聲通解》「凡例」第8條.

이를 귀납한다.

넷째, 당시의 어음에 관한 문헌적 묘사와 주음기록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필자의 견해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음계를 귀납한다.

IV. 《四聲通解》에 반영된 중국어 음계

1. 성모체계

聲母의 주음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正音은 물론이요, 俗音과 今俗音에서도 《洪武正韻》의 31聲母 체계를 따르고 있다. 다만, 「序文」과 「凡例」 등 당시의 어음을 묘사하고 있는 문헌 기록에서는 상당한 성모의 변화들이 관찰되고 있다. 먼저 《四聲通解》이 따르고 있는 《洪武正韻》의 31聲母체계¹⁹⁾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牙	舌頭	脣重	脣輕	齒頭	正齒	喉	半舌	半齒
全清	見ㄱ k	端ㄷ t	幫ㅍ p	非ㅍ f	精ㅈ ts	照ㄷ ʃ	影ㅇ ʔ		
次清	溪ㅋ k'	透ㅌ t'	滂ㅍ p'		清ㅈ ts'	穿ㅈ ʃ'	曉ㅎ x		
全濁	群ㄱ g	定ㄷ d	並ㅃ b	奉ㅍ v	從ㅈ dz	狀ㅈ dʒ	匣ㅎ ʔ		
次濁	疑ㅇ ɲ	泥ㄴ n	明ㅁ m	微ㅁ w			喻ㅇ ø	來ㄹ l	日ㄷ z ²⁰⁾
全清					心ㅈ s	審ㅈ ʃ			
全濁					邪ㅈ z	禪ㅈ ʒ			

19) 《四聲通解》 권두의 〈洪武韻三十一字母之圖〉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표 안의 각 음소별 재구음은 강신항(1980, 再版) p.163를 따른 것이다.

20) 중세국어에서 ㄷ는 [z]음을 표기한 것이었으나, 호명양(1963)에서는 이를 [ʒ]에 대한 표기로 보고 있다. 호명양의 이러한 처리는 《翻譯老乞大·朴通事》의 우측 주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서, 좌측음이나 《洪武正韻譯訓》 그리고 《四聲通解》 등에서는 舌頭와 正齒의 전탁음인 邪母(ㅈ[z])와 禪母(ㅈ[ʒ])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비록 당시 舌尖後음이 완전히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전탁음과의 구별을 위해 강신항(1980)의 처리대로 [z]을 따르기로 한다.

聲母 기록에서 「序文」과 「凡例」 그리고 音注 등의 현실어음에 대한 문헌적 묘사와 俗音과 今俗音 등 이에 대한 실제 注音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어음변화의 과도기적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 全濁音의 변화

《洪武正韻》의 31聲母 중 全濁 聲母는 群ㄱ·定ㄷ·並ㅃ·奉ㅍ·從ㅍ·邪ㅈ·狀ㅈ·禪ㅉ·匣ㅊ 등 9개이다. 《四聲通解》에서는 正音뿐 아니라 俗音과 今俗音에서도 9개의 全濁 聲母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四聲通解》「凡例」에서는 全濁音의 세부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全濁 上聲의 제자들은 時音에서 반드시 全清 去聲처럼 발음한다. 하지만 太監 金輔 선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²¹⁾ 그 이름의 “輔”자를 上聲으로 발음한 것은 清音에 가까웠으며, 또한 중국인을 만났을 때 세간에서 “愼”자를 “친”으로 발음한 것은 이를 모두 平聲 濁音자로 발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책이나 고사에서 “陞上”이라고 할 때의 “上”은 “賞”으로 소리 나며, “睚眦”에서의 “眦”는 “蔡”로 소리 난다. 《切韻指南》에 이르기를 “時忍切”인 “腎”자와 “時賞切”인 “上”자는 똑같이 濁音으로서 마땅히 去聲과 같이 발음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上”자는 清音인 “賞”자와 같이 발음되고, “其蹇切”인 “件”자와 “其兩切”인 “強”자 역시 거성과 같이 발음되며, “強”자를 清音인 “강 礎”²²⁾자로 발음한다. 그런즉 “時忍切”는 마치 “晒”자와 같이 소리 내고, “其蹇切”는 마치 “遣”자와 같이 소리 내면 되는 것이다. 곧 濁音 上聲인 글자들이 혹은 去聲 같고, 혹은 清音 같고, 혹은 次清音과 같으니 그 어음을 정하기가 어려움이 이와 같다. 《切韻指南》에서 또 말하기를 “葵蔄”를 “貴귀”로 읽고, “菊菊”을 “非구”로 읽는 것과 같은 류는 곧 방언이라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부득이하게 잠시 동안 그 俗音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 하였으니, 俗音이 잘못된 발음을 역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上聲全濁諸字時音必如全清去聲呼之也。 但金輔太監到本國呼其名輔字爲上聲

21) 《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金輔는 燕山君 9年(1503) 명나라 사신으로 조선을 방문한 기록이 있으며, (中宗 15年(1520) 12月 28日(壬子): “癸亥年, 金輔爲天使, 而廢主世子有親授之例”) 中宗 3年(1508)에도 조선을 방문했음을 알 수 있다. (中宗 3年(1508) 1月 5日(癸卯): “又查得弘治八年三月內, 封姓諱爲朝鮮國王, 該本部題準, 差太監金輔、李珍齋勅并紵絲紗羅等件, 前去行禮. 案呈到部.”)

22) “礎”자는 비록 《通解》에는 출현하지 않지만 “강”이라는 독음으로 보아 清音인 見母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則似乎清音。又見漢人時呼慎字音爲寘是則全用平聲濁字作音之例而呼之也。然書言，故事云陞上之上音賞，睚眦之眦音蔡，切韻指南云時忍切腎字，時賞切上字同是濁音，皆當呼如去聲而却將上字呼如清音賞字。其蹇切件字、其兩切强字亦如去聲，又以强字呼如清音강穉字。然則時忍切如哂字，其蹇切如遣字 可乎云爾，則濁音上聲諸字之音或如去聲或如清音或如次清，其音之難定，如此。指南又云葵稱貴、菊稱非字之類，乃方言之不可憑者，則不得已而姑從其俗云爾，則俗音隨謬之呼亦不可不從也，如此。²³⁾

위 「凡例」에서는 일부 글자들을 제외한 全濁音 上聲字들이 去聲으로 변화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²⁴⁾ 하지만, 최세진의 審音 기준에 따르면, 모든 全濁音 上聲字들이 예외 없이 去聲으로 변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輔·上(陞上)·賢·件”자 등 일부 全濁 上聲字들은 聲母만 清音으로 읽히고 聲調는 그대로 上聲으로 읽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注音에서는 일부 글자의 俗音 기록에서만 清音 음소를 사용하였을 뿐, 대부분의 全濁音 聲母들에서 正音과 다른 俗音이나 今俗音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四聲通解》에서 全濁音 聲母의 俗音 기록이 正音과 다르게 나타나는 글자들은 다음과 같다.

例字	正音	俗音	今俗音	비고
擗關 ²⁵⁾	뻐(+ㄱ) ²⁶⁾ (並, 陌韻)	핑	없음	

23) 《四聲通解》「凡例」第21條.

24) 全濁 上聲의 去聲化에 관해서는 《翻譯老乞大, 朴通事》「凡例」‘清濁聲勢之辨’條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全濁音은 群, 定, 並, 奉, 從, 邪, 床, 禪 등 여덟 개의 聲母이다. 이들 중 平聲은 처음내는 소리가 쌍성으로 나며, 소리를 끄는 힘은 가운데는 누르다가 뒤에 세어지며, 上聲, 去聲, 入聲은 처음내는 소리가 全清과 거의 같으나 소리를 끄는 힘은 각각 세 聲調의 高低에 맞추어 발음하므로 全清과 辨別하기 어렵다. 오직 上聲만은 去聲으로 발음하니 또 全清의 去聲과 辨別하기 어렵다.(“全濁 群, 定, 並, 奉, 從, 邪, 床, 禪 八母, 平聲初呼之聲亦岐出雙聲, 而引聲之勢中按後厲. 上, 去, 入 三聲初呼之聲逼同全清, 而引聲之勢各依三聲之等, 而呼之故與全清難辨. 唯上聲則呼爲去聲, 而又與全清去聲難辨矣.”) 라고 하여, 清音化 하는 과정에서 平聲과 仄聲이 각각 서로 다른 변화를 겪었으며, 대부분의 全濁上聲字가 去聲으로 변화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挺挺挺挺挺挺挺挺挺	땡(定, 梗韻)	팅	없음	
夥	해(匣, 解韻)	로	없음	又哿韻 ²⁷⁾
蹀	화(匣, 馬韻)	파	과	
非	행(匣, 梗韻)	경	궁, 궁	
桓桓桓桓桓桓桓桓桓	훤(匣, 寒韻)	원	없음	

위 표에서 보듯 俗音이나 今俗音에서 全濁音의 淸音化 기록은 陌韻(並母 일부→滂母); 梗韻(定母 대부분→透母); 寒韻(匣母 대부분→喻母)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四聲通解》의 일부 淸音化 기록은 《洪武正韻譯訓》의 俗音에서도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全濁音에 관한 양자 간의 발전 상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凡例」의 묘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全濁音의 淸音化 현상이 俗音과 今俗音의 기록에 폭넓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申叔舟의 당시 全濁音의 淸音化에 대한 이해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全濁音 上, 去, 入聲字들 중 지금 中國人이 初聲에 쓰고 있는 글자들은 淸音에 가깝게 발음되지만 역시 원래의 淸音과는 여전히 구별이 있다. 平聲 글자의 初聲만은 次淸音과 가까우나, 원래 次淸音이었던 음은 그 소리가 맑아서 음이 곧고 낮게 끝나며, 濁音에서 次淸音으로 변한 음은 그 소리가 탁해서 음이 조금 세게 끝난다.

全濁上去入三聲之字, 今漢人所用初聲, 與淸聲相近, 而亦各有淸濁之別. 獨平聲之字初聲, 與次淸相近, 然次淸則其聲淸, 故音終直低, 濁聲則其聲濁, 故音終稍厲.²⁸⁾

위에서 보듯 申叔舟는 당시에 발생한 全濁音의 淸音化를 인정(“與淸聲相近”)하면서도 淸音化한 全濁音이 원래의 淸音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有淸濁之別”)라

25) “擗”자 아래 “俗音핑?字同.”라는 音注가 보이는데, 필자가 조사한 판본에서는 “?”의 글자가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洪武正韻譯訓》에서는 “關” 아래에만 “핑”이라 俗音을 달고 있어, 본 표에서는 陌韻 並母 入聲字의 “擗關” 두 글자만 俗音 기록이 있는 것으로 예시하였다.

26) 《四聲通解》의 正音에서 入聲의 대표자들은 藥韻(-녕)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미 중성을 생략하여 주음하고 있다. 하지만, 入聲韻을 여전히 陽聲韻과 함께 배치하고 있으며, 각 韻目 아래 따로 -ㄱ·-ㄴ·-ㄹ을 기록하고 있다.

27) 哿韻(“擗”)에는 俗音 기록이 없다.

28) 《四聲通放》「凡例」第2條.

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음소와 음위의 차이를 혼동했을 가능성이다. 즉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중국어 음소 간의 미세한 물리적 차이를 음위의 차이로 인지했을 가능성이다. 全濁音의 음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淸音과 의미상의 변별을 주지 못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음소 간에는 여전히 다소간의 물리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申叔舟가 이를 “有淸濁之別”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성모의 문제를 성조의 문제와 혼동했을 가능성이다. 위 인용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신숙주가 설명하고 있는 淸濁의 차이가 주로 音高 현상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용문에서 全濁音 平聲 글자의 淸音化 과정에서 신숙주가 느낀 “淸濁之別”은 아마도 聲母의 차이가 아닌 당시 平聲의 分化로 인한 陰平聲과 陽平聲의 차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淸音을 묘사하면서 그 어음이 곧고 낮게 끝난다(“音終直低”)고 하였고, 濁音을 설명하면서는 그 어음이 탁해서 조금 세게 끝난다(“音終稍厲”)고 하였는데, 이 역시 聲母간의 차이라기보다는 聲調간의 차이를 느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주지하듯 전탁음의 청음화는 성조의 변이를 동반한다. 申叔舟가 全濁音의 仄聲字와 平聲字를 구분하여 그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흡사 王力(1900~1986)이 《漢語史稿》에서 全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설명하면서 破裂音과 破擦音의 경우 平聲은 有氣音 즉 次淸音으로, 仄聲은 無氣音 즉 全淸音으로 각각 변화하였다고 주장한 바²⁹⁾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비록 신숙주가 이러한 성조의 변이를 청탁의 차이로 오인했다 하더라도 당시 中國語에서 全濁音이 淸音化되고 있었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은 적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는 正音뿐 아니라 俗音과 今俗音에서도 《洪武正韻譯訓》에서의 全濁音을 그대로 모두 존속시키고 있다. 全濁 聲母의 淸音化에 대한 崔世珍의 관찰은 申叔舟에 비해 더욱 명료하다. 위에서 언급한 《四聲通解》「凡例」 이외에도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全濁音은 群, 定, 並, 奉, 從, 邪, 床, 禪 등 여덟 개의 聲母이다. 이들 중 平聲은 처음내는 소리가 쌍성으로 나며, 소리를 끄는 힘은 가운데는 누르다가 뒤에

29) 王力, 《漢語史稿》, p.143: “平聲字變爲吐氣的淸音; 仄聲字(上去入三聲的字)變爲不吐氣的淸音”

세어지며, 上聲, 去聲, 入聲은 처음내는 소리가 全淸과 거의 같으나 소리를 끄는 힘은 각각 세 聲調의 高低에 맞추어 발음하므로 全淸과 辨別하기 어렵다. 오직 上聲만은 去聲으로 발음하니 또 全淸의 去聲과 辨別하기 어렵다.

全濁 群, 定, 並, 奉, 從, 邪, 床, 禪 八母, 平聲初呼之聲亦岐出雙聲, 而引聲之勢中按後厲. 上, 去, 入 三聲初呼之聲遍同全淸, 而引聲之勢各依三聲之等, 而呼之故與全淸難辨. 唯上聲則呼爲去聲, 而又與全淸去聲難辨矣.³⁰⁾

申叔舟와 崔世珍이 사용한 各字並書의 표기가 성조의 변화에 따른 표지였음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四聲通解》에 기록된 《中原音韻》의 한글 표음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중고시기 全濁音들 중 《四聲通解》에 기록된 《中原音韻》의 표기어음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例字	中古音		《中原音韻》 ³¹⁾		《四聲通解》“中原音韻”음		
	자모	성조	자모	성조	韻	자모	성조
芄	並	平	p ^h	陽平	東	ㅁ ³²⁾	平
奉	奉	上	f	去		“鳳” ㅁ ³³⁾	去
市	禪	上	ʃ	去	支	ㅅ	去
聚	從	上	ʦ	去	魚	ㅆ	去
鹿豸	澄	上	tʃ	去	皆	ㅈ	去
峴	匣	上	x	去	先	ㅎ	去
篆	澄	上	tʃ	去		ㅈ	去
大	定	去	t	去	歌	ㄷ ³⁴⁾	去
碭	定	去	t	去	陽	ㄷ	去
駘	定	平	t ^h	陰平	皆	“透母” ㅌ	平
繪	從	平	ʦ	陰平	庚	“瞞” ㅈ	平
熟	禪	入	ʃ	入作陽	屋	ㅅ ³⁵⁾	平

30)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淸濁聲勢之辨’條

31) 《中原音韻》의 전사음은 楊耐思(1981)의 《中原音韻音系》 체계를 따랐다.

32) “芄”자는 東韻 並母와 奉母에 중복출현하고 있으며, 奉母에 중원음운의 어음표기(“中原音韻只收ㅁ母”)를 기록하고 있다.

33) “奉”자는 원래 奉母 上聲에 속하는 글자이지만 《四聲通解》에서는 非母 上聲에 소속시키고 “中原音韻鳳”으로 각주를 신고 있다. 한편 “鳳”은 奉母 去聲에 분류된 글자로서, 성조에 차이를 성모의 청탁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大”자는 皆韻 定母 去聲과 歌韻 定母 去聲에 중복 출현하며, 皆韻에서는 “俗音ㅌ”, 歌韻에서는 “今俗音ㅌ, 中原音韻同”의 기록이 보인다. 중고시기의 全濁音 “大”에 대한 《中原音韻》의 [t-]를 俗音과 今俗音은 물론이요, 《中原音韻》의 재구음 역시 각자병서 “ㄷ”를 사용하고 있어, 각자병서가 전탁음의 표지가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全濁音 글자들에 대한 《四聲通解》“中原音韻”음의 자모표기를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中原音韻》에서 無聲·有氣·陽平으로 발현되는 글자는 《四聲通解》에서 各字並書(“芘”)로 전사하고 있으며, 無聲·有氣·陰平과 無聲·無氣·陰平으로 발현되는 글자는 홀자모(“駘繪”)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중고시기 全濁 上聲 및 去聲 글자들은 《中原音韻》에서 無氣·無聲·去聲으로 발현되며,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모두 各字並書(“奉市聚廬豸峴篆大碭”)로 전사하고 있다. 중고시기 全濁 入聲 글자들은 《中原音韻》에서 대부분 無氣·無聲·入聲作平聲陽으로 발현되며,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홀자모(“熟”자)를 사용하여 전사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관계를 통해 볼 때, 平聲에서의 各字並書는 全濁 平聲에서 발전한 陽平의 표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全濁 上聲과 全濁 去聲에서 발전한 淸音 去聲을 원래의 淸音 去聲과 구별하기 위해 각자병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全濁 入聲에서 발전한 陽平聲의 경우에는 원래의 淸音 平聲과 다름없는 홀자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洪武正韻譯訓》이나 《四聲通解》와는 달리 國俗撰字 방식에 의한 《翻譯老乞大·朴通事》의 右側音에서는 全濁音의 淸音化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표기하고 있다.

키티표처음은 《四聲通攷》에서는 次淸音으로 사용되었지만, 全濁 初聲 역시 그 어음과 흡사하여, 지금 번역(右側音)에서는 全濁 初聲에 모두 차칭음을 사용하여 초성으로 삼는다.

키티표처음乃通攷所用次淸之音, 而全濁初聲之呼亦似之,故今之反譯全濁初聲皆用次淸爲初聲³⁵⁾

위 「凡例」의 설명대로 右側音에서는 한국어 어음체계에서 한자음의 전탁 표지로 전용되었던 各字並書를 쓰지 않고 淸音化한 口語音을 이와 유사한 한국어 초성을 사용하여 注音符호로써 현실어음에 더욱 가까운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었다.

35) “熟”자는 屋韻 禪母 入聲에 분류되어 있으며, “中原音韻수십二音, 今俗音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36)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諺音’條.

《四聲通解》				《翻譯老乞大·朴通事》		普通話
例字	正音	俗音	今俗音	左側音	右側音	
被(眞韻, 並母)	뵤	(뵤)	뵤	뵤	비	[p]
鳳(送韻, 奉母)	뵤	(뵤)		뵤	봉	[f]
同(東韻, 定母)	뵤	(뵤)		뵤	통	[tʰ]
慈(支韻, 從母)	쯔	(쯔)		쯔	츠	[tʰ]
詞(支韻, 邪母)	쓰	(쓰)		쓰	스	[tʰ]
陳(眞韻, 狀母)	진	(진)		진	친	[tʃʰ]
時(支韻, 禪母)	씨	쑤		쑤	스	[ʃ]
其(支韻, 群母)	끼	(끼)		끼	키	[tʃʰ]
胡(模韻, 匣母)	후	(후)		후	후	[x]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四聲通解》의 31성모체계에서 全濁音を 나타내는 9개의 성모는 당시의 실제음가에서 이미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속음과 금속음에 여전히 존속시킨 것은 전탁성모의 청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조의 변이로 인해 따라오는 발음상의 차이를 자모의 차별화를 통해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 零聲母의 증가

全濁音의 소실과 함께 近代漢語의 성모 변화 중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零聲母의 증가를 들 수 있다. 云母와 以母가 宋人三十六字母에서 이미 합해져 喻母가 되고, 이어서 《中原音韻》 시기에는 影母 역시 喻母에 병합되었으며, 疑母의 상당부분도 喻母에 귀속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零聲母와 관련하여 《中原音韻》과 현대 보통화의 차이라면 疑母와 微母가 여전히 독립 음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四聲通解》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四聲通解》의 표면적인 성모체계를 볼 때, 疑母와 微母는 물론이요, 影母마저도 喻母에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시키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먼저, 《四聲通解》의 影母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당시 한국에서 影母에 사용한 ㅇ의 소리값은 喻母(ㅇ)과 상당히 가까워 서로 구별 없이 사용되던 자모이다. 《訓民正音解例·合字解》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보인다.

초성ㅈ은 ㅉ와 비슷하여, 언문에서 통용할 수 있다.
初聲之 ㅈ與 ㅉ相似, 於 諺 可以 通用 也.

한편, 《訓民正音解例·用字解》에서는 이 “ㅈ”가 빠져있으며, 순수 諺文에서는 “ㅈ”이 초성이나 종성에서 단독으로 쓰인 기록이 없고, 다만 世宗 世祖代의 문헌에서에서도 動名詞 語尾 “-ㅈ”의 형태로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³⁷⁾

어음변천과정을 통해 볼 때, 당시 《四聲通解》에서 影母(ㅈ)를 喻母(ㅉ)에 분류시킨 예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겠지만,³⁸⁾ 오히려 喻母(ㅉ)를 影母(ㅈ)로 표기하고 있는 예도 적지 않다.

賄韻: 蔦 蕓 闔 騰 洧 鮪 痲 趨 葦 偉 韓 暉 煒 瑋 墮 蓓³⁹⁾

篠韻: 漉 鶯 昏⁴⁰⁾

尤韻: 攸 悠 悠⁴¹⁾

북방음계를 기록하고 있는 《四聲通解》에서 影母에 중고시기의 喻母를 소속시키고 있다는 것은 현대 어음과 비교해보아도 발음발전상의 역행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당시 影母가 喻母와의 구분이 모호해졌음을 방증하는 일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四聲通解》의 편자는 이미 影母가 喻母에 귀속되었음을 인지하면서도, 《洪武正韻》의 어음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어음의 역사적 근원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影母를 형식적으로 독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이기문(1972) p.28 참조.

38) 《四聲通解》에서 影母(ㅈ)를 喻母(ㅉ)에 분류시킨 예로는 擁 塢 壅 (董韻); 焉 馮 (先韻); 慰 (勿韻); 浥 裊 庵 (葉韻) 등이 있다.

39) “蔦”자 아래에는 “古韻 ㅉ母 下 同, 蒙韻 ㅉ母 下 至 瑋 字 同”이라 하여, 당시 해당 글자들이 喻母와 影母 그리고 疑母로 각각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洪武正韻》에서도 이들 글자들을 影母에 분류하고 있어 당시 이들 자모들이 혼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0) “漉”자 아래에는 “蒙韻 · 韻會 ㅉ母 下 至 昏 字 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洪武正韻》에서도 이들 글자들을 影母에 분류하고 있다.

41) “攸”자 아래에는 “古韻 ㅉ母, 蒙韻 · 韻會 同 並 下 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洪武正韻》에서도 이들 글자들을 影母에 분류하고 있다.

둘째로, 《四聲通解》의 疑母의 독음 역시 喻母와 가까웠음은 《訓民正音解例·制字解》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어금니소리의 ㄹ만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아서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 ㄹ과 비슷하여 운서에서도 疑母와 喻母가 많이 서로 혼용되는 것이다.

唯牙之ㄹ,雖舌根閉喉聲氣出鼻,而其聲與ㄹ相似,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

여기에서 우리는 《訓民正音》 편찬자들이 牙音의 “ㄹ”에 대하여 “舌根閉喉聲氣出鼻”라 하고, 또한 《訓民正音解例·終聲解》에서는 “ㄹ”에 대해서 “ㄹ聲淡而虛,不必用於終”(소리가 맑고 비어서 종성으로 쓰지 않더라도 음을 이룰 수 있다)이라 하였으니, 疑母와 喻母의 구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음가의 차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의 음가가 비슷해져 운서에서 많이 혼용되었다고 한 것은 당시의 음가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음가 변화에 대한 인식은 申叔舟의 《四聲通攷》「凡例」 제6조에도 언급되고 있다.

본운(洪武正韻의 운)에서는 疑母와 喻母가 많이 뒤섞여 있는데, 여기(四聲通攷)에서는 글자마다 고음을 따라 喻母는 다만 ㄹ로 쓰고, 疑母는 다만 ㄹ를 써서 이들을 구별하였다.

本韻疑·喻母諸字多相雜,今於逐字下從古韻,喻則只書ㄹ,疑則只書ㄹ母以別之.

이와 같이 疑母와 喻母의 혼용현상을 감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崔世珍의 《訓蒙字會·諺文字母》에는 당시의 疑母와 喻母의 혼용현상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다만 초성으로 쓰인 ㄹ는 ㄹ와 대중들의 발음이 서로 가까우므로 대중에서는 초성에 모두 ㄹ음을 사용한다. 만일 앞 글자에 ㄹ음 종성이 있으면, 뒷 글자에 반드시 ㄹ음으로 초성을 삼는다. ㄹ자의 음은 코를 움직여 내는 소리이며, ㄹ자의 음은 목구멍 속에서 내어서 가볍게 비어있는 소리일 뿐이니, 첫소리에서는 비록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서로 비슷하다. 漢音의 ㄹ음 초성은 어떤 것은 ㄹ(ㄹ)과 같아지

고, 어떤 것은 ㄹ과 ㅇ가 뒤섞이어서 구별이 없게 되었다.

唯ㄹ之初聲與ㅇ字音俗呼相近，故俗用初聲則皆用ㅇ音。若上字有ㄹ音終聲，則下字必用ㄹ音爲初聲也。ㄹ字之音動鼻作聲，ㅇ字之音發爲喉中輕虛之聲而已，故初聲雖稍異而大體相似也。漢音ㄹ音初聲或歸於ㄴ音或ㄹㅇ相混無別。

이렇듯, 崔世珍과 申叔舟는 모두 疑母(ㄹ)와 喻母(ㅇ)에 대한 음가의 차이는 물론 당시 중국어에서 이들이 서로 혼용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고음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당시 모든 疑母가 喻母에 귀속되지는 않은 단계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변화과정에 있는 어음에 대한 注音 처리상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四聲通解》에서 疑母 글자들의 전사형태를 통해 疑母의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다. 첫번째는 중고시기의 疑母를 正音에서 그대로 疑母에 분류시키고, 俗音과 今俗音을 언급하지 않은 단계로서 《四聲通解》의 어음기록을 그대로 현실음 체계로 인정할 때 중고음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正音에서 疑母에 분류시키고 俗音 및 今俗音에서 喻母로 기록하고 있는 단계로서 운서에서 분류되는 달리 세간에서는 喻母로 읽히고 있던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正音에서 아예 喻母에 분류시킨 단계로서 운서에서의 분류 자체가 현대한어 어음과 같아진 단계이다.

이들 단계 가운데 먼저, 疑母의 변화가 감지되는 俗音 혹은 今俗音에서 중고시기 疑母 글자들이 喻母로 표기된 예는 다음과 같다.

皆韻, 卍: 暉

皆韻, 卍: 外

眞韻, 卍: 銀垠齷斷閨豈訶嚙寅寅臙臙听愁迥

質韻, 卍⁴²⁾: 仵疙屹疑

42) 《四聲通解》에서는 입성운의 正音을 표기할 때 韻目에만 관련 終聲을 표시하고 세부 字母 아래 反切 번역표기에서는 終聲을 생략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했던 喻母를 影母로 분류한 것과 마찬가지로 喻母를 疑母에 분류한 예도 있다.

陌韻(ㄷ): 役疫域滅戩械蠶緘闕

“役”자 아래에는 “今俗音잉...下同”이라는 기록이 보이며, 이들은 《洪武正韻譯訓》에서도 “俗音잉”이라 기록하고 있어, 喻母와 疑母가 뒤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陌韻(ㄷ)의 “額額諮” 세 자는 喻母에 배치되어 있지만, 오히려 “俗音잉 蒙韻애, 今俗音엷或엷”이라 주를 달고 있어 俗音은 물론이요 今俗音에서도 의모(ㅇ)를 유지시키고 있다. 이 역시 통시적인 발음변천에 역행하는 현상이므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중고시기 疑母의 글자들이 《四聲通解》正音에서 이미 喻母에 분류된 기록들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支韻(ㅣ): 宜儀犧涯厓崖疑嶺沂(平聲); 螻蟻錡犧犧輶顛矣擬儼蕤(上聲); 藝蕤執
櫛義誼議劓毅藪乂刈(去聲)

皆韻(ㅈ): 涯厓崖暉捭(平聲)⁴⁵⁾

先韻(ㄴ): 妍研言(平聲)彦彥唁諺(上聲)

先韻(ㄹ): 元原沅邗嫫螭駝(平聲)

陌韻(ㄷ): 額額諮(入聲)

鹽韻(ㅁ): 嚴巖巖澱(平聲)儼儼(上聲)

이들은 《中原音韻》에서 이미 喻母에 병합된 것들로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에서도 똑같이 처리되고 있다. 《四聲通解》에서는 《中原音韻》의 성질에 대해 특

각각 성모를 “ㄴ”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ㄴ”은 《中原音韻》과 《洪武正韻譯訓》에서 모두 喻母(“ㅇ”)에 분류되어 있으며, “業”은 《中原音韻》과 《洪武正韻譯訓》에서 모두 疑母(“ㅇ”)에 분류되어 있다. 이는 중고시기의 일부 疑母(“ㅇ”) 글자들이 16세기 초기에는 이미 普通話와 같이 [n-]으로 발음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45) “涯”자 아래에는 “古韻皆ㅇ母下同, 韻會애, 今俗音애並下同”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당시의 어음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해당글자 아래 《中原音韻》의 어음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四聲通解》가 《洪武正韻譯訓》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中原音韻》에서의 직접적인 발전관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다만, 俗音과 今俗音이 北方 口語音을 반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시간에 따른 어음 변화를 함께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 《中原音韻》에서 상당수의 중고시기 疑母 글자들이 喻母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疑母를 喻母와 구별하여 여전히 독립시키고 있다. 《四聲通解》의 俗音과 今俗音에서는 《中原音韻》에서 疑母에 분류된 글자들 중 적지 않은 글자들을 喻母로 기록되고 있어, 普通話에 더욱 가까워진 형태를 보이고 있어 그 발전상황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普通話와 비교할 때, 《四聲通解》의 疑母에 귀속시킨 상당수의 글자들은 여전히 俗音과 今俗音 표기가 빠져있어 그 변화를 고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1. 陰聲韻

例字	通解			譯訓		中原	비고
	韻 ⁴⁶⁾	正音	俗音	正音	俗音		
魚漁語愚 ⁴⁷⁾ 御	魚, ㄲ	ㅇ	없음	ㅇ	없음	∅	
吾梧五午誤悟	模, ㄷ	ㅇ	없음	ㅇ	없음	∅	
皃數駮艾碍	皆	ㄱ	없음	ㅇ	없음	∅	
歪		ㄴ	없음	ㅇ	없음	∅	
危 ⁴⁸⁾ 崑崙擧桅顧魏	灰, ㄱ	ㅇ	없음	ㅇ	없음	∅	

46) 평성의 운목자로 평·상·거성의 운목을 아울렀으며, 입성의 운목은 따로 기록하였다. 또한 해당 운의 중성과 종성을 표시하였다.

47) “愚”자는 《韻譯老乞大·朴通事》에서 총 1회 출현하며, 좌측음의 성모에서 우측음과 마찬가지로 ‘ㅇ’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에 모두 속음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ㅇ’의 오기로 보인다.

48) “危”자는 《韻譯老乞大·朴通事》에서 총 1회 출현하며, 우측음에서 疑母(ㅇ)글자를 모두 喻母(ㅇ)로 기록한 주음 원칙에 어긋나고 있어 우측음의 성모 ‘ㅇ’은 ‘ㅇ’의 오기로 보인다.

2.2. 陽聲韻

通解				譯訓		中原	비고
例字	韻	正音	俗音	正音	俗音		
顯喁	東, ㄹ	ㅇ	없음	ㅇ	없음	없음 ⁴⁹⁾	
獻獻獻	先	ㄴ	ㅇ	ㅇ	없음	∅	
阮願愿媛援院		ㄹ	ㅇ	없음	ㅇ	없음	∅
仰昂柳	陽, ㄹ	ㅇ	없음	ㅇ	없음	ㅇ	“仰”(上聲): 俗音양 “釀”(去聲) 今 俗音 양
擬迎硬硬	庚, ㄹ	ㅇ	없음	ㅇ	없음	∅	“迎”자: 疑母 와 喻母에 중 복 출현

2.3. 入聲韻

通解				譯訓		中原	비고
例字	韻	正音	俗音	正音	俗音		
玉獄塢鈺	屋, ㅍ	ㅇ	없음	ㅇ	없음	∅	
孽孽孽孽臬	屑	ㄴ	ㅇ	ㅇ	없음	n	譯訓 正音 終聲-ㄷ
月別樾越粵日軌		ㄹ	ㅇ	없음	ㅇ	없음	∅

이상을 통해 우리는 影母와 疑母 그리고 喻母가 당시 한국어에서 발음이 유사했음은 물론 중국어에서의 대체적인 혼용 현상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다만, 俗音과 今俗音의 기록이 없는 경우 喻母 귀속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우리는 《翻譯老乞大·朴通事》의 右側音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影母의 표기에 사용된 [ㅎ-]는 당시 한국어의 초성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國俗撰字 방식에 따른 右側音에서는 影母가 독립적으로 존재했더라도 [ㅇ-]를 사용했을테지만, 疑母의 표기에 사용된 [ㄹ-]는 [ㅇ-]과 더불어 한국어의 初聲에 사용되었던 자모인만큼, 만약 당시 중국어에서 疑母가 喻母에 대립하여 독립적인 발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疑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右側音에서 당연히 [ㄹ-]으로 기록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右側音에서는 중고시기 影母와 疑母 그리고 喻母에 속

49) 《廣韻》東韻合口三等 글자들은 [∅]로 귀속됨.

한 글자들을 구별 없이 [o-]로 注音하고 있다. 더구나 《翻譯老乞大·朴通事》가 운서와는 달리 실용적인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한 중국어 회화 학습서임을 감안할 때 보다 더 현실적인 어음을 기록하고 있음은 추측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四聲通解》시기에 影母와 疑母는 실제 구두어음에서 이미 喻母에 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微母의 경우 《四聲通解》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今俗音에서조차 “微微激激尾麴未味”(正音 미) 등의 글자를 “뫼”로 기록하고 있어 그 변화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翻譯老乞大·朴通事》의 「凡例」를 통해서 당시 微母의 일부 글자들에서도 역시 影母 및 疑母와 더불어 喻母에 병합되는 현상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微母는 소리낼 때 喻母와 가까우며 四聲이 모두 같다. 예를 들어 惟자는 본래 미에 속하는 것이지만 《洪武正韻》에서도 역시 “뫼” 혹은 “위”에 소속시키고 있고, 지금 세속에서도 “뫼”를 “위”로 발음하고 있으니, 이는 微母가 喻母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이다. 오늘날 微母를 발음할 때 혹은 喻母로 발음해도 역시 통한다. 중국의 세속에서 喻母로 바뀌어져 읽는 글자들은 지금 역시 喻母로 그것을 기록한다.

微母作聲近似於喻母而四聲皆同，如惟字本微母而《洪武韻》亦自分收於兩母뫼或위，今之呼뫼亦歸於위，此微母近喻之驗也。今之呼微母或從喻母亦通。漢俗定呼爲喻母字今亦從喻母書之。⁵⁰⁾

실제로 《翻譯老乞大·朴通事》의 左側音에서는 《四聲通解》와 마찬가지로 모든 微母 글자들을 “뫼”로 기록하고 있다. 다만 右側音에서는 위 범례의 기록대로 미모를 微母(“뫼”)와 喻母(“o”)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左側音	右側音	例字 ⁵¹⁾
뫼	뫼	無(23)務(1)文(28)問(21)物(37)
뫼	o	霧(1)微(2)未(3)尾(2)晚(15)亡(1)網(3)忘(4)望(8)

50) 《翻譯老乞大·朴通事》의 「凡例」 “非 뫼奉뫼微 뫼三母”條.

51)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글자의 출현회수이다.

우리는 위의 기록들로부터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만약 今俗音 기록 “휘”의 初聲 “ㄹ”가 분류를 위한 형식적 표지가 아닌 실제 음가를 가지고 있던 성모였다면 그것의 초성음가는 적어도 “ㄷ”[u]는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성 “기”[ui]와 합해진 “휘”를 전사하면 [uui]가 되므로 불필요한 초성의 설정이 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만약 今俗音 기록 “휘”의 초성 “ㄹ”가 단지 원래의 소속을 밝히는 형식적인 표지일 뿐이었다면, 今俗音 “휘”와 右側音의 “위”는 형식적인 주음상의 차이일 뿐, 실제 음가는 같은 [Ø]라는 것이다. 《四聲通解》가 운서인데 반해 《翻譯老乞大·朴通事》는 중국어 회화교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실제음가에 보다 근접한 어음표기에 주력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위 표에서 보듯 右側音에서의 “ㄹ”와 “ㅇ”는 뒤섞임 없이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微母의 발음이 《翻譯老乞大·朴通事》의 右側音에서처럼 “ㄹ”과 “ㅇ”로 양분되어 있었음을 재차 상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순차적 변화는 어음 변천에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것이므로 당시의 微母 글자들 중 일부는 완전히 喻母에 귀속되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글자들은 그대로 微母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어 어음 발전과정에서 微母는 대체로 [m]→[v]→[w]→[Ø]의 발전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王力은 微母가 《中原音韻》시기에 [v]로 변화된 뒤 17세기까지 줄곧 [v]를 유지하였으며, 그 이후에 半母音 [w]을 거쳐 零聲母([u])로 변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⁵²⁾ 만약, 위 《翻譯老乞大·朴通事》의 「凡例」의 지적대로 微母 (“ㄹ”[w])가 喻母 (“ㅇ”[Ø])에 가까워지고 일부 글자들에서는 이미 귀속현상이 발생하였다면, 微母의 零聲母化는 17세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 표의 右側音 표기에서처럼 15세기에 이미 산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ㄹ-과 ㅇ-로 표기된 글자들 간의 특별한 음운조건 차이의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⁵³⁾ 그 변화 규칙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52) 王力, 《漢語史稿》 p.128 참조.

53) 無務(遇攝合三); 文問物(臻攝合三); 霧(遇攝合三); 微末尾(止攝合三); 晚(山攝合三); 亡網忘望(宕攝合三)

3) 知章莊 계열 성모의 변화

주지하듯 舌尖後音(捲舌音) 형성의 근간이 되는 聲母는 중고시기의 舌上音 知組 聲母와 正齒音 계열인 莊組 聲母와 章組 聲母 그리고 日母字이다. 주성일(2005)에서 이미 이들의 병합과정을 토대로 捲舌音의 형성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며, 陰聲韻에서의 捲舌音化가 陽聲韻 및 入聲韻에서보다 빨랐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四聲通解》의 陰聲韻 기록만을 중심으로 그 변화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攝	中古音		通解		中原	圖經 ⁵⁴⁾	例字
	等呼	聲母	正音	俗音			
假	開二	知莊	ㄊ a	없음 ⁵⁵⁾	a	a	茶叉差沙紗娑
	開三	章	ㄷ iə	없음	iɛ	ɛ	者車扯蛇赦舍社
遇	開三,	知章日	ㄲ iɨ	없음	iu	u	猪煮處除書如住株柱乳
	合三	莊	ㄷ u	없음	u	u	助梳蔬數
蟹	開二	莊	ㄱ ai	ㄱ ai	ai	ai	齋債差
	開三	知	ㄱ iəi	ㅣ i	i	ɿ	滯癘
		章	ㅣ i	ㄱ ⁵⁶⁾ iɿ	i	ɿ	世誓
合三	知章	ㄱ ui	없음	uei	uei	綴稅	
止	開三	知	ㅣ i	ㄱ iɿ	i	ɿ	知致置
		章莊	ㅣ i	ㄱ ⁵⁷⁾ iɿ	i	ɿ	支枝紙廁齒柿師詩時市
	日	ㅣ i	ㄱ iɿ	i	ə	二兒而耳餌	
合三	知章	ㄱ ui	없음	uei	uei	錐吹錘水墜睡誰	
效	開二	莊	ㄱ aw	없음 ⁵⁸⁾	au	au	爪鈔炒稍秒
	開三	知章日	ㄱ iəu	ㄱ iaw	iɛu	au	朝趙照詔少燒饒擾
流	開三	知章日	ㄱ iw	없음	iəu	əu	醜籌周州籌收手揉
		莊	ㄱ iw	없음	əu	əu	皺愁驟瘦

54) 《等韻圖經》(“圖經”)의 전사음은 郭力(1987)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 체계를 따랐다.

55) 俗音 기록이 없는 부분은 正音과 일치하기 때문에 판단되며,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의 左側音을 통해 《四聲通攷》의 俗音 역시 正音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래 표에서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의 左側音과 右側音에서 표기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일이 주기하도록 한다.

56) 右側音에서는 終聲에 “ㄱ”을 사용하지 않고 “ㅣ”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한국어 어음체계의 終聲에 “ㄱ”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음기는 左側音 즉 俗音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

57) 止攝開三 章莊日 3組의 경우 우측음에서는 모두 “ㅣ”[ɿ]로 기록하고 있어 종성 “ㄱ”을

《中原音韻》과 마찬가지로 《四聲通解》에서도 知章莊 三組 聲母들의 부분적 합병 현상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音理的 관점에서 볼 때, 捲舌音化的 완성은 무엇보다도 관련 3等韻과 결합하는 성모들의 韻母 혹은 介音 [i] 탈락과 직결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俗音 표기에 사용된 終聲 “△”의 성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四聲通解》支紙寘(중성 | 一)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세 운 가운데 齒音 글자들의 초성을 발음할 때는 입과 혀 모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으로 종성을 삼으면 정확한 발음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費(즈)字는 증으로, 知(지)字는 징으로 발음해야 하며, 다른 글자들도 마찬가지다. 牙音과 脣音은 그렇지 않다.

三韻內齒音諸字初呼口舌不變,而以△爲終聲然後可盡其妙.如費즈字呼爲증,知지字呼爲징餘倣此.牙音脣音則否.

위 기록을 볼 때 蟹攝과 止攝에 보이는 終聲 “△”는 聲化 符號라 판단되며, 中聲과의 결합 형태를 분류해보면 그 발전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蟹攝의 경우 開口 三等자를 보면 知組에서는 聲化 符號 “△”의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章組에서는 聲化 符號 “△”가 표기되고 있다. 하지만 中聲 “|”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止攝 開口 三等에서는 知章莊組와 日母에 모두 聲化 符號 “△”가 표기되고 있지만 知組에서는 中聲 “|”와 결합한 “ㄱ|”의 형태로 기록되고 있으며, 章莊 2組와 日母에서는 中聲 “|”가 “一”로 변형되어 “△”의 형태로 기록되고 있다.

聲化 符號 “△”와 “|”의 변형유무 등 音韻 조건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開口보다 合口와 결합한 글자들에서 捲舌音化가 먼저 진행되었다. 둘째, 각 攝 莊組에 이어 止攝 開口 三等 章組와 日母⁵⁹⁾의 捲舌

사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中聲에 변화를 주고 있다.

58) 效攝과 流攝의 경우 俗音의 표지는 없지만 左側音에서는 正音과 마찬가지로 모두 終聲에 “ㄹ”을 사용하고 있으며, 右側音에서는 당시 한국어 음계에서 사용되지 않은 終聲 “ㄹ”을 배제하고, 이를 “ㄱ”과 “ㄷ”로 각각 기록(ㄱ-ㄱ; ㄷ-ㄱ; ㄱ-ㄷ; ㄷ-ㄷ)하고 있다.

59) 陰聲韻에서 日母의 권설음화가 止攝의 開口 三等에 국한되고 있음은 《中原音韻》과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陽聲韻의 通攝 合口 三等에 속하는 “戎菽駮絨茸慵冗” 등 글자들(正音 송, 俗音 송)의 俗音에서는 《中原音韻》과 달리 “|”를 탈락시키고 있어 발전 단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化는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다.⁶⁰⁾ 셋째, 止攝의 知組와 蟹攝의 章組가 그 뒤를 이어 捲舌音化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넷째, 止攝을 제외한 기타 攝의 開口三等에서는 아직 捲舌音化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中原音韻》에서 《四聲通解》시기까지 진일보한 捲舌音化 현상이 관찰되지만 여전히 과도기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等韻圖經》시기에 이르러서야 관련 성모들의 완전한 捲舌音化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四聲通解》, 影印本, 서울, 대제각, 1985.
 《洪武正韻譯訓》, 影印本, 서울, 대제각, 1985.
 《翻譯老乞大》(上, 下), 影印本, 서울, 대제각, 1985.
 《翻譯朴通事》(上), 影印本, 서울, 대제각, 1985.
 《通文館志》, 影印本, 서울, 경인문화사, 1972.
 《中原音韻》(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1978.
 《洪武正韻》(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二三九冊), 臺灣, 商務印書館.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膠卷本), 中國, 北京圖書館所藏.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全十二冊), 中國, 中華書局, 1980.
 《朝鮮文獻中的中國東北史料》, 王崇實等 選編, 中國, 長白叢書, 1991.
 王 力, 《漢語史稿》(《王力文集》第九卷), 中國, 山東教育出版社, 1988.
 ——, 《漢語語音史》(《王力文集》第十卷), 中國, 山東教育出版社, 1988.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中國, 北京大學出版社, 1986.
 楊耐思, 《中原音韻音系》, 中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郭 力,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 北京大學碩士論文, 1987.
 蔣紹愚, 《近代漢語研究概況》, 中國, 北京大學出版社, 1996.
 耿振生, 《明清等韻學通論》, 中國, 語文出版社, 1992.
 遠藤光曉, 《〈翻譯老乞大·朴通事〉漢字注音索引》, 日本, 好文出版社, 1990.
 李鐘九, 《〈老乞大·朴通事〉漢語語音研究》, 中國,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1996.
 唐作藩, 《普通話語音史話》, 中國, 語文出版社, 2000.

60) 陽聲韻과 入聲韻의 각 攝 開口三等에서는 莊組를 제외하고는 모두 “l”와 결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陰聲韻보다 권설음화가 늦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 何九盈,《中國古代語言學史》,中國,廣東教育出版社,2000.
- 南廣祐,《朝鮮(李朝)漢字音研究》,一潮閣,1993.
- 朱星一,《15, 16世紀朝漢對音研究》,中國,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2000.
- 葉寶奎,《明清官話音系》,中國,廈門大學出版社,2001.
- 李得春,《朝鮮對音文獻標音手冊》,中國,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2002.
- 甯忌浮,《洪武正韻研究》,中國,上海辭書出版社,2003.
- 金基石,《朝鮮韻書與明清音系》,中國,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2003.
- 이강로,《사성통해의 음운학적 연구》,박이정,2004.
- 俞昌均,《韓國 古代漢字音의 研究 I》,啓明大學校出版部,1980.
- 李基文,《國語音韻史研究》,塔出版社,1995.
- 金完鎭,《中世國語聲調의 研究》,塔出版社,1994.
- 李成九,《訓民正音研究》,도서출판Apple기획,1985.
- 한대동,《世宗代의 音聲學》,연세대학교출판부,1998.
- 주송식,《고대한어통론》,中文出版社,1989.
- 도수희,《한국어 음운사 연구》,塔出版社,1994.
- 權憲永,《古代韓中外交史》,一潮閣,1997.
- 姜信沆,《四聲通解研究》,新雅社,1980.
- ,《訓民正音研究》,成均館大學出版部,1994.
- ,《韓國의 譯學》,서울대학교출판부,2000.
- ,《韓國의 韻書》,太學社,2000.
- ,《四聲通解 音系 研究 序說》,《진단학보》제34집,1972.
- 孫建元,《〈四聲通解〉今俗音研究》,中華書局,2010.
- 胡明揚,〈老乞大諺解和朴通事諺解中所見的漢語朝鮮語對音〉,中國,《中國語文》1963年 第3期.
- 遠藤光曉,〈〈翻譯老乞大·朴通事〉里的漢語聲調〉,中國,《語言學論叢》第十九輯,1984.
- 楊耐思,〈普通話語音探源〉,《近代漢語音論》,中國,商務印書館,1997.
- 李新魁,〈論中原音韻的性質及它所代表的音系〉,中國,《江漢學報》,1962.8.
- ,〈論近代漢語共通語的標準音〉,中國,《語文研究》,1980.1.
- 李崇寧,〈〈洪武正韻譯訓〉研究〉,《震檀學報》第20輯,1959.
- 李基文,〈十六世紀 國語의 研究〉,《高麗大學校文理論集》第4輯,1959.
- 俞昌均,〈〈四聲通解〉에 반영된〈蒙古韻略〉〉,《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1969.
- 鄭然燾,〈十五世紀 國語의 Tone 研究〉,《國語研究》第8號,1960.
- 金海宗,〈韓中朝貢關係考〉,《東洋史學研究》第1輯,1966.
- 鄭 光,〈〈翻譯老乞大, 朴通事〉의 中國語音 表記 研究〉,《國語國文學》第64輯,

1974.

- 朴炳采, 〈〈洪武正韻譯訓〉俗音考〉, 《高麗大學校文科大學人文論集》第20輯, 1975.
- 楊人從, 〈十五世紀中國北方音韻體系〉, 《建國大學校大學院論文集》第13輯, 1981.
- 李敦柱, 〈〈翻譯老乞大, 朴通事〉의 漢音調價에 관하여〉, 《國語學》第18輯, 1989.
- , 〈〈翻譯老乞大, 朴通事〉의 漢音上聲變調에 관하여〉, 《周時經學報》第3輯, 1989.
- , 〈〈翻譯老乞大, 朴通事〉凡例考(I)〉, 《語文論叢》第10輯, 1989.
- , 〈〈翻譯老乞大, 朴通事〉凡例考(II)〉, 《湖南文化研究》第18輯, 1989.
- 金九鎭, 〈朝鮮前期 韓中 關係史 試論〉, 《弘益史學》第4輯, 1990.
- 박태권, 〈〈훈몽자회〉와 〈사성통해〉 연구(2)〉, 《어문논집》 제24·25집, 1985.
- 李在敦, 〈〈四聲通解〉에 반영된 16世紀 中國語音系 研究〉, 《中國文學》第21輯, 1993.
- 黎新第, 〈普通話古清入字歸調條理探索〉, 《音韻學研究》第三輯, 中國, 中華書局, 1994.
- 曾曉渝, 〈試論〈西儒耳目資〉의 語音基礎及明代官話의 標準音〉, 中國, 《西南師範大學學報》, 1991.1.
- 曾曉渝, 〈〈西儒耳目資〉의 調值擬測〉, 中國, 《語言研究》, 1992.2.
- 李得春, 〈朝鮮歷代漢語研究評價〉, 中國, 《延邊大學學報》, 1994.2.
- 金基石, 〈朝鮮文獻對音中的入聲字及其歸派〉, 中國, 《語文研究》, 1999.4.
- 賀 巍, 〈漢語官話方言入聲消失的成因〉, 中國, 《中國語文》, 1995.3.
- 丁邦新, 〈論官話方言研究中的幾個問題〉, 中國, 《丁邦新語言學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 1998.
- 장위동, 〈正音俗音皆時論辨〉, 《중국어연구》 제19집, 2000.
- 김태성, 〈조선 신숙주의 중국어관〉, 《중국어언어연구》 제14집, 2002.
- 朱星一, 〈조선초기 韓中對譯音 자료를 통해 본 捲舌音의 형성과정〉, 《中國語文論譯叢刊》第14輯, 2005.
- , 〈조선 초기 韓中 譯音 자료에 나타난 중국어음 표기방식 연구〉, 《中語中文學》第38輯, 2006.
- , 〈申叔舟와 崔世珍의 中國語 正音觀〉, 《中國學報》第57輯, 2008.
- 裴銀漢, 〈洪武正韻兩種板本以及四聲通解之分韻體系〉, 《중국어언어연구》 제20집, 2005.
- 이영월·장재웅, 〈四聲通解〉에 기재된 〈中原音韻〉 주석 연구, 《중국어연구》 제32집, 2005.
- 유재원, 〈翻譯老乞大·朴通事 중국어 표음에 관한 고찰〉, 《중국어연구》 제36집, 2006.
- 장효단, 〈崔世珍四聲通解是最早反映漢語北方話m尾已并入n尾的〉, 《중국어언어연구》 제24집, 2007.
- 장위동, 〈正音俗音皆時論辨〉, 《중국어연구》 제19집, 2000.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朝鮮王朝實錄》.

【英文提要】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all agree to the fact that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offers relatively significant and direct tips for constructing the actual transliteration of Chinese language during the Won-myeong(元·明) period than any other references do.

As to the history of developments on Chinese Language, the Modern Chinese plays a role as a bridge between the Ancient Chinese and the Present Chinese. It would be impossible to fully understand the Present Chinese Language without an adequate amount of study on the Modern Chinese. Plus, since the period of the modern Chinese was when the most of basic transliteration in the present Chinese were featured, numerous linguists are especially interested in it.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from the Joseon Dynasty, written in phonogram, has been contributed greatly to researches on phonetic values of the actual transliteration at that period. And, the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is also known to help the academia overcome the limitation of Chinese traditional phonology. The researches on Chinese traditional phonology would have relied on the elementary recording system of the transliteration only, if the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has not been existed. The only recording systems that the linguists were able to refer to, except the documents on the transliteration, were Fanqie phonetic

notation(反切) from Rhyme book(韻書) and Rhyme chart(韻圖). Amongst all, 《Sa-seong-tong-hae(四聲通解)》, the unique Woon-seo of the Joseon Dynasty, is the most valuable source since it contains personal views of Joseon phonologists toward the Chinese phonemes.

The study is showing the transliteration system of Mandarin and the actual phonetic values in Chinese language, which have been reflected in 《Sa-seong-tong-hae(四聲通解)》. Th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good enough by looking at documents on the transliteration, such as Jeong-eum(正音), Sok-eum(俗音) and Keum-sok-eum(今俗音). Since the properties of the transliteration recording, like certain methods and principles on recording the transliteration, were particularly considered during the research. In other words, because it was not only 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transliteration recording, the study ended up with more objective and reasonable conclusions.

【主題語】

近代漢語, 對譯音, 聲母, 全濁音, 零聲母, 捲舌音

투고일: 2011. 1. 25 / 심사일: 2011. 2. 1~2. 12 / 게재확정일: 2011. 2. 15